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6. 2. 25(금)	
		작 성 문 의	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실 총괄기획과장 정병규 / 사무관 임희오 (Tel. 044-200-2259)
<b>엠바고</b>	<b>26일 15시 30분(행사종료) 이후 사용</b>		

## “징비록 유비무환 정신으로 완벽한 해상방어태세 갖춰라”

- 황교안 총리, 이지스함인 「서애류성룡함」 올라, 전투훈련상황 점검
- “싸우면 반드시 이기고, 적이 두려워하는 무적함대 만들어 달라” 당부

□ 황교안 총리는 2.26일(금)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서 열린 ‘제주민 군복합항 준공식’에 참석하여 축사를 한 뒤,

- 제주 민군복합항에 정박 중인 우리 해군의 최정예 이지스함인 「서애류성룡함\*」에 승선하여 해군의 안보태세를 점검하고, 장병들을 격려했다.

\* 7600톤 규모로 함포, 함대함·함대공 유도탄, 어뢰 등으로 무장. 우리 해군은 세종대왕함, 울곡이이함을 포함해 총 3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

※ 축사 별도배포

□ 「서애류성룡함」 함장(김성환 대령)으로부터 전투훈련상황을 보고 받은 황 총리는 장병들에게 최근 우리의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을 강조한 뒤,

- “적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징비록의 유비무환 정신으로 완벽한 해상방어태세를 갖추고, 국가와 국민

의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달라”고 당부했다.

○ 황 총리는 또 “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적이 두려워하는 무적함대를 만들어 달라”고 주문하였다.

□ 한편, 황 총리는 취임 후 해군 222전진기지대 및 해병대 연평부대(15.7.10.), 육군 1사단(15.9.26.), 공군 제19전투비행단(15.12.30.), 육군 3사단(16.2.3.) 등 육·해·공군 각 부대를 찾아 전투태세를 점검하는 등 안보행보를 이어가고 있다.